완주 곶감 우수성 높인다

군, 산림소득 사업 18억 지원… 이상기온 대응 건조시설·관정 등 품목 확대

완주군이 주요 특산물인 곶감 등 청정 임산물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올해 산림소득 증대사업에 18억원을 지원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사업분야는 곶감 등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사업 등 임산물 유통분야(3개 사업)를 비롯, 표고재배시설 지원 등 산림작물생산 분야(3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등 총 8개 분야다.

올해부터는 이상기온 등의 피해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저장·건조시설 및 관정시설,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 품목 등을 확대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이상고온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곶감 생산농가들의 소득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곶감 건조시설 현대화 및 장비 보완사업 예산으로 8억3000여만원을 편성, 특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신승기 산림축산과장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완주 곶감의 우수성과 인지도가 올라감에 따라 임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반딧불 사과나무 분양

홍로·후지 주당 10만원

무주군이 반딧불 사과나무를 분양(무풍면 지성리 일대 무풍사과단지)한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pple.muju.go.kr)를 통해 분양하는 반딧불 사과나무는 홍로 300주와 후지 1,200주로 가격은 주당 10만 원이다.

일정에 따라 꽃따기와 열매솎기, 수확체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수확량은 30㎏을 보장해준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황재창 애플파크 담당은 "분양받은 나무에서 수확한 사과는 30㎏이 넘어도 모두 가져가실 수 있고 30㎏이 안되면 모자라는 수량만큼 채워드린다"며 "올해는 사과나무 한 그루 분양받아서 해발 500m이상 고랭지에서 자라 맛도 품질도 으뜸인 반딧불 사과도 맛보시고 가족, 연인, 친구, 동료와 함께 즐거운 추억도 만들어보시라"고 전했다.

군은 해마다 관광과 연계한 사과나무 분양으로 소득을 키워나가고 있는 가운데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만여 주를 분양해 10억여 원의 분양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8000천여 팀 2만 5천여명의 체험객들의 발길이 무풍면은 물론, 인근 지역의 반디랜드와 태권도원, 머루와인동굴, 덕유산, 적상산 등의 명소로까지 이어지며 다양한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로컬플러스

정점순 진안여성단체협의회장 선출

진안군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 제10대 신임회장에 정점순(49·사진)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장이 선출됐다.

진안군여성단체협의회는 최근 여성일자리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2016년 결산보고와 함께 2017년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선출했다.

회장선거에 단독 출마해 추대된 정점순 회장은 지난 5년간 여성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 수익사업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빨래봉사, 목욕봉사, 밑반찬봉사, 노인대학 배식봉사 등 가슴으로 따뜻한 사랑을 담아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

제10대 회장에 선출된 정점순 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여성단체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희망차고 따뜻한 진안군여성단체협의회를 만들도록 회원들과 화합을 통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헌집 고쳐드려요

무주군, 저소득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추진

무주군은 저소득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해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으로, 군은 거주자의 안전, 건강과 위생, 생활불편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가 필요한 개축, 대수선 공사를 제외한 개량·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 7억 2,800만원(복권기금 3억6,400만원과 군비 3억6,400만원)을 투입해 182호의 주택을 개보수할 예정이다. 사업범위는 지붕과 벽체, 천정, 담장 등에 대한 구조보강과 노후 보일러, 난방배관 등을 교체·보수하는 난방공사, 화장실·주방 등의 위생설비, 그리고 문·창틀 보수와 타일공사, 방수공사 등이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김한수 은 "어려운 이웃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업 마무리까지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을 진행했던 무주군은 당초 계획 물량보다 13동 많은 101동을 마무리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2월 6일~3월 3일까지 접수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항로)은 올해 장학생 선발접수를 16일부터 2월 3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2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지난 16일부터 2017년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안을 진안군청 홈페이지 및 진안사랑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한 뒤 3월 3일까지 접수를 받아 4월 중 장학재단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017년 1월 1일 기준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진안군민 또는 그 자녀로,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 복지 및 특기 장학생, 해외 장학생 등 수혜범위를 다양화하여 4개 부문에 걸쳐 95여명을 뽑는다.

이들에게 지급될 장학금 총액은 1억 6,700만원이며 선발인원은 접수인원에 비례 또는 타 장학금 수혜 여부, 선발인원 해당자가 없을 시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 상위 10명에게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전국 우수고에 진학한 신입생에게는 300만원의 특별장학금이 지급된다.

대학생의 경우 직전 학년 성적평균이 B학점 이상인 재학생에게 200만원의 일반장학금이,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서울대 등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과 우수 지방소재 신입생에게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특별장학금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부문별 구비서류를 갖춰 2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3-430-2514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 구이면, 직원대상 친절교육

완주군 구이면(면장 김동준)에서는 지난 16일 자체 친절강사로 선정된 임수정 주무관이 구이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전직원 친절교육은 매주 월요일 근무시간 20분전, 순번에 따라 친절교육 강사로 선정된 직원이 사전에 교육자료를 준비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친절의 3S 원칙(Stand up·일어서서 먼저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Smile·웃으며 반기기 '어서 오십시오', Say yes·긍정적인 말투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을 직접 체험했다.

김동준 구이면장은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친절 서비스로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소규모 연립·다세대 주택도 신청 가능

완주군은 다수의 주민이 밀집해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한 아파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2017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이다.

또한 재난안전시설물(옹벽·석축·절개지 등)의 보수·보강, 단지 내 보안등의 보수, 주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등이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투표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완주군은 그동안 지원이 어려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맞게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도 일부 개정해 노후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은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 지원을 실시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춘성 진안읍장, AI 거점 방역초소 방문

진안군 진안읍(읍장 전춘성)은 17일 진안읍 거점소독장소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과 함께 최근 10년만에 찾아온 한파에 근무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난방기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전춘성 읍장은 "진안군에서 AI 발생이 없는 것은 근무자들의 적극적인 근무로부터 시작되었다"며 "앞으로도 청정 진안에서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윤기두 근무자는 "읍장님이 방문해 격려해주시고, 난방기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여건에서 관내 축산 농가들의 안전 및 청정 진안군을 위해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설맞이 도로 정비… 23일까지 도로시설물 위험요인 제거

장수군은 설을 맞이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특별도로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0일간, 위임국도 13호선을 비롯해서 지방도 6개 노선 등 도로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도로이용자들의 불편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군은 이번 특별 일제정비 기간 중에 ▲포트홀(도로노면에 파인 곳) 및 도로변 낙석위험지 ▲기존도로 정비 및 안전점검 ▲공사구간 현장관리 등을 중점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변 배수로 정비를 하고,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우성 건설경제과장은 "명절 기간 중 군민과 귀성객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완벽한 정비는 물론, 국도와 지방도 등도 도로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경찰, 범죄취약지 일제점검

장수경찰서 장계파출소(소장 김영신)는 설 명절을 앞두고 평온한 치안확보를 위해 관내 범죄취약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방범활동은 관내 공·폐가와 원룸주변, 주택가 골목길 등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마을방범 cctv 점검 등 방범시스템 점검과 순찰활동을 전개했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4대악 홍보 전단지를 배부해 4대 사회악 근절활동 홍보도 실시했다.

또한 청소년 탈선 우려가 있는 공·폐가와 pc방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동계방학 기간을 맞은 청소년들에 대해 보호활동도 추진했다.

김영신 장계파출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과 순찰활동을 실시해 평온한 치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범죄 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양봉협회 간담회 개최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17일 진안군양봉협회(회장 박병옥) 회원 30여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기술센터 강당에서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2017년도 양봉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과 협회의 역할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양봉농가의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병옥 양봉협회장은 "기후변화와 밀원수 부족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양봉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자."며 회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밀원수를 100ha 이상 식재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식재하여 양봉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며 "양봉협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봉산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을 높여나가겠다." 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창업 투어플래너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완주군 창업보육센터는 2017년 제1회 완주군 창업스쿨 '창업·창직을 위한 완주형 투어플래너 양성과정(이하 투어플래너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투어플래너는 고객입장에서 여행을 상담해 주고, 선택해 주는 여행전문가이며, 웨딩플래너나 재무설계사처럼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발생하고 활성화 될 필수적인 직업이다.

이번 투어플래너 양성과정에서는 완주의 상황에 맞게 지역주민을 해외로 보내는 국외여행업은 물론,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